실체를 향한 사랑, 예배

(요한복음 4:13~26)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실체를 향한 사랑, 예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실체를 향한 사랑, 예배'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수가성 여인의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쓴 본문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느꼈던 기쁨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이입은 나

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기록이 수가성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쁨의 외적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긷기 위해 나왔던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제일 더운 시간을 골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긷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더는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으러 나왔다는 점에서 외면을 당하는 존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지방의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때에 물을 긷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인적이 드문 낮 12시에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톨이로 지내야 했던 이유는 남편을 여섯 번이나 바꾼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따돌리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갈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혈루병을 고침 받은 여인이 있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나인성 과부도 있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통해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사렙다 과부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미리암도 있었고,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한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뻐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기뻐할 마땅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에 유의하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쁨 또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지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에는 흥분하시고 활력을 되찾으십니다.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을 향해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로마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뚜렷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피곤을 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의 전환점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는 이 여인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

은 이러한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분임을 자각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이자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서비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로써 노예가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예배라는 말이 노예의 입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의 의미를 강조하여 다시 해석한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예배하지 못하느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지 예배당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예배는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예배는 재물을 비롯하여 마음이 섬길 수 있는 모든 대상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말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돈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목마를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상들은 한 번 마시면 마음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믿어지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의 갈증 자체를 사라지게 해준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예배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전

해집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서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의 근원을 남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남편을 바꾼 끝에 결국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남편조차도 앞선 다섯 남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지 못했고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인식하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써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실체로 인정하며 돈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만 한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돈을 예배하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만사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만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상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마음에 돈이나 건강 같은 예배의 대상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들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실 분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 등이 마음의 갈증을 없애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마음의 갈증을 없앨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후에 놀라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물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형식으로써의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남편을 마음의 생수의 근원처럼 여겼으나 그 어떤 남편도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실 유일한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과는 다르게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생수의 근원으로 믿으며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언급은 실체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대단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고 여겨지는 실체가 돈일 때에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장사라도 하고 사업이라도 하면 됩니다. 자녀의 형통이 실체라고 믿어진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실 수 있음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갈증만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마음의 실체로 믿는 동안에는 남편을 바꿀 때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만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가성 여인은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몸을 위해서 마지못해 물을 길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서늘한 시간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이 그간의 행동으로 인해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없는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와 물을 긷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심을 알고 예배에 대해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 산을 성산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마음이 실체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기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는 의욕을 내십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먹고 마실 물이 없으셔서 지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셔서 원기를 회복하셨던 것

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원기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기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선민의 공동체 내에서 전도활동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갈을 해결해주실 유일한 실체이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실은 온통 재물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돈이 마음의 실체였던 것은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수수료를 받으며 그 수입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돈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는 실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도를 하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체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갈증을 없앨 유일한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어서는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든 돈이든 자녀의 형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 물었던 것은 마음에서 실체를 하나님으로 국한시켰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을 형식적인 예배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예배가 형식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수가성 여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동선은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마음에서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실체고 돈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즉 돈을 섬기고 돈에게 봉사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역사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곧 실체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선민들이 사는 지역 어디에서도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없었고 마음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실체 인정의 기근에 지쳐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 땅 사마리아에서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드

디어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실체로 삼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하나님만을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 땅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없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면 장관자리를 얻을 것을 마음의 실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마음의 기갈이 없어지리라 여기며 예수님을 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지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남편을 실체로 삼았던 실패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갈을 해결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알게 된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가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만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갈을 해결해주실 샘이 되신다고 믿고 하나님만을 실체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실체로 여기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역사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영과 진리가 아닌 육과 육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마음의 실체로 믿게 된다면 그 돈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육체를 통해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도입니다. 돈을 실체로 믿는 사람은 많은 돈을 얻게 해준다고 믿어지는 수단을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자녀의 형통을 실체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형통이라는 실체에 도달하는 방법을 진리로 믿고 좇게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란 실체와 실체에 이르는 길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정해지고 나면 실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 삶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되는 이 공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체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나 깨나 장사가 잘 되어서 흑자를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자라면 자나 깨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전형적인 출발점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LA에 가서 2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사역과 관계된 일로 초청을 해주셔서 갔었고, 간 김에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분들과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은 5년 10년을 들어도 성장이 정체되어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주 동안 LA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고 돌아와서는 서울과 청주와 거창과 부산을 가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이 기간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이 특별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설교를 하는 부흥회와는 다르게 1인사경회를 20~30번 하고 온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둘이 있던 현장에서 부흥회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실체로 보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가성 여인 같은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전자를 주시고 발동시킴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만, 말씀을 듣게 된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실체이심을 인정하고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마음은 한 번에 뒤집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고 실체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을 실체로 선택하고, 그 실체에 도달하게 되는 길이 진리이며 그 길을 얻는 것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삶 자체를 예배로 규정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모토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는 방송 자체도 좀 더 생활화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음이 된 곳에서 강대상과 조명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친밀한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방송용 스마트폰을 따로 구입하여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일환이자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써 이러한 모바일 방송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닌 삶의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역사를 이루신 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마음이 완전히 해갈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갈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갈을 해소할 샘으로써 실체를 정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실체가 되고자 아른거립니다. 자녀 문제가 마음의 실체가 되겠다고 아른거리고, 돈 문제가 마음의 실체가 되겠다고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대상들이 마음의 실체가 되려하고 마음의 기갈을 해결해주겠다며 유혹하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비록 돈도 없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실체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실체이심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십자가 복음방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갈을 해소할 샘으로 여길 수 있다면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숙할지라도 말씀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심을 믿는 분들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방송이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향한 사랑을 하시기 바

랍니다. 실체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면 수가성 여인처럼 한방에 마음이 뒤집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뒤집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발맞추어 방송의 생활화로 주일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더욱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도달하는 실체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주시고 수가성 여인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며 마을을 뒤집는 하늘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실체의 유혹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